

### 13. 려명이 비껴오다

935년 3월 하순무렵 어느날이었다.

왕건이 주요대신들을 어전으로 불러들이어서 이날 고려조정은 신새벽부터 설레이고있었다.

후백제조정에서 마침내 일이 터지여 이찬 능환이 일부 대신들과 짜고 반정을 일으켰던것이다. 반년 넘게 들인 거사를 일거에 치른 반정의 직접적동기는 견훤의 왕위양도에 있었다.

견훤은 예견했던바대로 후실의 자손인 금강을 태자로 선포하였다.

3월초 어전조회석상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자 그 즉시로 후백제조정은 기름가마끓듯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능환이 이발을 사려물고 일어섰다. 왕위는 죽으나사나 신검이 이어야 한다, 후백제를 일으켜세운것은 이 능환이다, 견훤이 말년에 로망이 든것만큼 나라의 사직을 바로하고저 나서지 않을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온몸을 끓이고있는 능환에게 이미전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파진찬 신덕과 영순이 찾아와 가슴을 두드리며 독촉해나섰다. 능환은 량검과 룡검이 부대를 끌고 완산주어귀에까지 들어오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이 극비밀리에 진행되여 견훤은 물론 금강자신도 모르고있었다.

금강은 신검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나 주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완산주도성 방어사의 직책을 겸하고서도 이들의 동향에 신경을 죽이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이후로 무슨 까닭인지 신검쪽이 조용해졌다.

별수가 있을라구, 제까짓것들이...

금강은 별다른 일없이 시일이 지나자 탕개가 풀려 해이되기 시작  
했다.

견훤도 점차 도성이 조용해지자 한시름놓고있었다.

그는 량검과 룡검이 병문안을 핑계로 자기를 찾아온것을 만나주면  
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한걸음 더 내짚어 그들이 청하는대로 한  
동안 말미를 정하고 금산사 절로 유람까지 떠나갔다.

드디어 일은 벌어져 견훤은 절에 들어서는 즉시 감금되었다.

제 아버를 가두어놓은 두 아들은 머리도 숙이지 않고 떠벌이었다.

《늙으신 부왕마마가 평생을 들여 일떠세운 후백제의 사직을 바로  
잡아 안존케 하자는것이니 안심하소서.》

《무엇이라고? 후백제의 사직을 너희들이 바... 바로잡는다구?!》

견훤은 천둥소리를 듣는듯 화들짝 놀랐다.

이애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있는건가?

《아직 알아듣지 못했소이까? 늙으신 부왕마마를 상왕으로 되시고  
우리가 성업을 이어갈가 함이외다.》

량검이 두눈을 부릅뜬채 견훤을 쏘아보며 뇌까리고있었다.

《나를... 상왕으로?! ... 아이쿠! ...》

견훤은 무너지듯 주저앉아버렸다.

비로소 사태를 깨달은것이였다. 다른 놈도 아닌 제 아들놈들이 아  
비를 폐위시키자고 나선것이였다.

(저런 천하에 찢어죽일 놈들을 보았나! ...)

견훤은 순간 까무라치고말았다.

량검은 자기의 군사를 갈라 금산사를 봉쇄하게 한 뒤 즉시 말머  
리를 돌려세워 김제고을을 벗어나 완산주까지 50여리길을 어둡기 전  
에 달려왔다.

도성앞에는 능환이 신덕, 영순과 함께 신검을 앞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량검과 룡검은 숨돌릴 사이없이 궁성으로 쳐들어갔다.

금강은 궁녀들을 끼고앉아 히히덕거리다가 순간에 량검의 칼날에

목을 잘리고말았다.

같은 시각에 룡검은 금강일파를 하나하나 도살해치웠다.

후백제도성은 순식간에 피에 잠겨들었다.

신검은 능환이 작성한 살생부를 보고 와들와들 떨었다. 후백제의 쟁쟁한 장수들이 거의다 들어있었던것이다.

《이들을 모두 죽이자는거요?》

《전하를 지지하지 않는자들이오이다. 용서했다가 이후에 후환을 당하느니 미리 죽여 환난을 막는수오이다.》

능환은 단호했다.

《하오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하는수밖에.》

신검은 수긍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그저 능환이 하자는데로 하는 꼭두각시 그대로였다.

능환은 간무까지 제손으로 죽여버렸다.

정신을 차린 견훤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 원통한 일이다. 제 자식들에게 이런 변을 당하다니...

아비가 한평생 바쳐 일으켜세운 나라를 자식놈들이 무너뜨릴줄이야... 절통한지고! ...)

견훤은 능환이 후백제의 장수들을 적지 않게 제거했다는 소식에 또 한번 까무라칠번 하였다.

장수들을 죽이면 군사는 누가 이끌고 왕건이와는 누가 싸운단 말인가! ...

견훤은 능환이 간무마저 죽였다는것을 전해듣자 다시금 까무라치고말았다. ...

어전회의는 정오무렵까지 계속되였다.

급변한 후백제조정의 정황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했던것이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오이다. 이후로 신검과 능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나서 공격해도 늦지 않을줄 아오이다.》

금필의 의견에 대다수 관료들이 동의했다.

일부는 제잡담 들이치자고 제기하였지만 왕건은 머리를 저었다.

금필은 왕건에게 또 한가지 주청했다.

《먼저 라주를 찰러보는것이 좋을듯 하오이다. 후백제조정이 혼란된 틈을 리용하면 쉽게 라주를 되찾을수 있을것은 물론 후백제의 맥도 짚어보는점 등뒤로 포위하는 효과를 얻게 될것이오이다.》

《그게 좋겠소.》

왕건은 금필의 제의에 만족해하면서 그 즉시로 그를 도통대장군으로 임명하고 라주로 떠나도록 하였다.

935년 4월 초사흘날, 금필은 수군을 이끌고 또다시 남으로 출병했다.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라주는 고려군에 떨어지고말았다.

고려는 다시금 라주를 타고왔으며 금필은 또 한차례 승전의 소식을 안고 송악으로 올라왔다.

...

견훤은 온몸이 분노로 타 재가 될 지경이었다.

밖에서는 대줄기같은 비발이 계속 내리꽂히고있었다. 보리장마였다.

견훤은 비발을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저 비발이 그대로 비수가 되어주었으면... 하여 신검이 그놈의 정수리를 내리쳐 급살시켜주었으면...)

견훤은 자나깨나 신검을 죽이고픈 생각 하나뿐이었다.

세상에 제 아버를 잡아먹는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식에게 화를 입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 자기 처지를 생각할수록 부아가 치솟아 참을수가 없었다.

(네 이놈! 내 너를 기어이 죽여버리고말테니 두고보아라!)

견훤은 이발을 부드럽게 소리나게 갈았다.

그는 지금 후실 고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는중이었다.

달포가 지난 뒤부터 절의 경비가 좀 허술해지기 시작했다.

신검이 제법 왕노릇을 감당하고있는 모양인지 소란하기 그지없던 완산주도성이 점점해졌다고 한다.

신검이 자기는 얼굴을 들여밀지 않으나 대우만은 후히 하여 견훤이

궁성에서 먹던 음식가지들이 거의나 그대로 상우에 오르는 판이었다. 실은 신검이 세상의 여론을 다소나마 무마해보려는 심산으로 하게 한짓이었다.

백성들은 제 아버지를 내친 신검을 따르지 않고있었으니 신검에게 붙은자들은 완산주도성안의 몇몇 관료들뿐이었다.

후백제의 대다수 관료들은 신검과 능환의 역모행위에 분노하고있었다.

장수들이 더욱 그러했다. 선대왕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죽인다면 누가 그뒤를 따를것인가. 누구든 다음왕에게 또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것이였다.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는 그 즉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참았다.

신검이 금산사에 갇힌 견훤을 아예 죽여버릴것 같아 그만두고만것이었다.

신검은 고립되어있었다. 신검의 지시는 후백제도성밖을 나가는 즉시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그는 도성안에서만 왕일뿐이었다.

능환이 민심을 돌려세우고저 어진 정사를 권고했다. 견훤이 폐위된 것이 나이타일뿐더러 새 왕이 상왕을 극진히 모신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노죽을 부리고있는것이였다.

여하튼간에 절의 경비가 풀린것이 기회로 되였다.

견훤의 후실 고비는 음식과 교태로 경비서는 군사를 어렵지 않게 휘여잡고 그 도움을 받아 절을 빠져나갔다.

그는 견훤이 가르쳐준대로 옥계사로 스며들어 운암대사를 만났다.

그에게 고려에로의 귀순을 도와달라는 견훤의 부탁을 전하고 급히 되돌아섰다.

대사 운암은 곧 이 사실을 라주의 고려진영에 알리였다.

고려군은 즉시 배길로 하루 반만에 이 정보를 개경에 날라갔다.

왕건은 이 정보를 받은 즉시 금필에게 파업을 주었다.

조용히 라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금산사에 갇혀있는 견훤을 빼내오라는 특별임무였다.

《견훤이 고려로 귀순하기를 청하였단 말이오이까?》

금필은 뜻밖의 소식에 와뜰 놀라기까지 하였다.

《아무쪼록 이 일을 실수없이 성사시켜야겠소. 견훤왕이 귀순한다면 세나라의 통일을 훨씬 앞당길수가 있네.》

《그러하오이다, 정녕코 그러하오이다.》

금필은 온몸을 떨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정주포구를 떠나 라주로 내려왔다.

금필은 라주에 내려와 운암대사와 련계를 가지였다.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뒤 견훤의 금산사탈출계획과 고려에로의 호송작전안을 주도세밀하게 짰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척되고있는줄은 모르고 견훤은 돌아온 고비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보내놓고 후회했다. 너마저 잘못되면 나는 어찌할가 하고 생각했지. 그저 죽고만싶었구나.》

《너무 걱정마시오이다. 운암스님은 꼭 도와주겠다 했소이다.》

《그가 대답은 그리해도 끝까지 해주겠는지는 모르겠구나. 그는 이미전에 날보고 욕심을 건어치우라고 한적이 있었다. 왕건에게 천명이 가있으니 단념하라는것이였지.》

운암은 왕건을 돕는데로 기울어진 사람이니 견훤 자기 같은 존재는 귀찮게 여길것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견훤은 잘못 생각하고있었다. 운암은 견훤이 왕건에게 가붙는것이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을 여는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고려의 통일대의를 돕는 일에 이보다 더 좋은 보탬거리가 어디 있으랴. 지금의 견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값진 존재인것이였다. 견훤자신만이 이것을 모르고있었다.

(신검, 이 고현놈! 내 고려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네놈을 죽이고야말것이다.)

견훤은 오로지 고려의 손을 빌어 못난 제 자식을 죽이려는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움해있었다.

이후로 일은 금필이 운암과 꾸민대로 착착 실현되어갔다.

고비가 금산사로 돌아간 뒤 나흘후에 운암은 다시금 사람을 띄워 견훤에게 알려왔다.

재간껏 절을 빠져나와 노루목까지만 당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에 네필의 말을 매놓을테니 말을 달려 만경강하구인 옥포로 가라고 했다.

로상에서 고려군의 마중을 받을 것이니 그들의 안내로 옥포에서 배에 오르면 된다고 하였다.

정작 탈출방안을 받아들자 이러저러한 착잡한 생각으로 견훤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었다. 그러나 견훤은 지체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고려에 가있었던 것이다.

감시하는 군사들을 따돌리는 일은 고비가 맡았다. 고비는 자기와 견훤의 몸에 지닌 패물을 갈라내어 가까운 장거리에 나가 술과 고기를 바꾸어왔다. 그날 밤은 경비군사전원을 불러놓고 술추렴을 벌렸다. 고비가 치마바람을 일구며 이들의 취흥을 돋구었다.

《그대들이 나 같은 늙은이를 지키느라 이 산중에 들어와 고생이 많으이. 두고 온 부모처자생각이 간절할테니 이 술로 마음을 달래이도록 하계. 자, 어서들 들라구.》

견훤이마저 수선을 떨고나서자 군사들은 아예 허리띠를 풀어제끼고 다가가붙었다. 지금껏 일없는 절인데 오늘이라고 일이 나라. 몇달째 술은 구경도 못해본 이들인데다 술에 주리고 정에 주려 갇혀있는 견훤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병졸들인지라 공짜술을 먹이는 인심을 마다할 리 만무하였다. 그들은 이내 다 취해 쓰러지고말았다.

견훤은 술에 취해 뿔아떨어진 군사들을 확인한 뒤 조용히 절을 빠져나왔다. 고비(승평부인)와 그의 아들 능예 그리고 딸 애복이까지 넷이었다.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새까맣다. 견훤은 눈더듬, 손더듬으로 숲을 헤쳐나갔다.

고비가 견훤을 거들었다.

노루목까지 나오는데 십리걸음이 들었다. 그곳에 약속한대로 운암이 보낸 말이 매여져있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옥포로 내달렸다.

운암의 말대로 가는 길에서 한무리의 기마대렬과 마주쳤다.

견훤은 흠칫했으나 인차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금필이 보낸 고려군사들이었던것이다.

견훤은 이들의 호위를 받으며 포구에 당도했다.

물가에서 금필이 견훤을 마중하였다.

《전하, 고려장수 유금필 인사드리오이다.》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유장수께서 이곳까지 나오시여 나를 마중하시다니요.》

견훤은 금필이 정중하게 대해주니 더없이 감동되어 눈곱부터 흠치었다.

금필은 견훤일행이 배에 오르자 인차 출발시켰다.

정주를 떠나올 때는 은밀히 오느라 몇척의 배가 내려왔을뿐이지만 돌아가는 길엔 마흔척의 배가 주련이 늘어섰다. 라주에서 보충한 전함들이었다.

혹여 후백제가 견훤을 가로막을가 우려한데도 있었지만 기본목적은 견훤의 위신을 높여주자는것이였다.

금필이 견훤을 살펴보고있노라니 그는 여전히 위구심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심경이 자못 복잡할것이였다.

지금껏 왕건을 죽이지 못해 갖은 술수를 다 써온 견훤인것이다. 때로는 마음에 없는 화의도 하였고 화친을 약속하기는 또 몇번이었던가. 허나 그것은 그때뿐, 이들은 서른해가 넘도록 서로 죽일내기만 해왔다.

바다에서는 몇번을 맞섰고 땅우에서도 또 몇번을 맞섰던가. 그 수는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려울것이다. 언젠가 운주성싸움때에는 옹근 하루낮을 맞붙어돌아가 동양최대의 접전기록을 세우지 않았던가.



견훤과 싸우기는 금필도 마찬가지였다. 금필이 견훤과 싸운 회수를 따져본다면 왕건을 훨씬 앞서는 정도였다.

당대의 속적으로 끝을 마칠것 같던 왕건과 견훤사이가 순간에 맹우로 뒤바뀌어졌다. 동등한 지위에서가 아닐뿐이었다.

견훤은 인생의 참패를 당한 이후에 말년을 의탁하는 일종의 구걸행각으로 비참한 참회의 길, 사죄의 길에 오른것이였다.

지금껏 적으로 맞섰던 자기를 고려왕이 정말로 대우해줄것인가가 견훤의 고민거리일것이였다.

(내가 이제 와서 그의 호의를 바랄수가 있을까?)

견훤은 이렇게 우려하고있는것이였다.

금필은 배전에 주저앉아있는 견훤을 부축해 일으켜세웠다.

《안으로 드시오이다. 바다바람이 차운데...》

금필이 이끄는대로 지척지척 걸어가는 견훤의 안색은 여전히 우울해있었다.

자기가 세운 나라를 버리고 남에게 일생을 의탁하러 가는 비참한 신세, 한해전만 해도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승부를 다투던 왕건에게 항복을 하러 가는것이냐 다름없이 된 자기 처지가 가련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그들이 정주에 도착한것은 해질무렵이였다. 옹근 하루를 내쳐 온 것이였다.

견훤은 정주포구에 내려 뜻밖에도 왕건의 마중을 받았다.

《고려임금께서 비천한 이 늙은이를 마중하시다니요! 송구하고 황공하기 그지없소이다.》

견훤은 감심어린 표정으로 숙인 머리를 인차 들지를 못하였다.

《전하께서 저를 찾아주시니 반갑기 그지없을뿐이오이다. 어서 허리를 펴시지요.》

왕건이 부축해주자 견훤의 얼굴이 그제야 들리였다. 그의 두눈에서 금시에 주먹같은 눈물방울이 두르르 굴러떨어졌다.

《명색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 있는 사람이로되 말년을 남의 집에

의탁하게 된 이 사람을 마음껏 비웃어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이다. 전하께옵서 우리 고려로 오신것은 작은 나라 임금에만 옴해있자 함이 아니옵고 동족의 나라들을 합치고합쳐서 더 큰 한 나라로 되게 하자는 뜻이겠으니 이 아니 환영할 일이 아니겠소이까.》

왕건은 견훤의 귀순에 대해 본인이상으로 큰 의의를 부여해주고있었다.

왕건은 견훤을 시종 부축해주며 송악으로 인도하였다.

금필은 왕건이 견훤을 투항해온 적국왕으로가 아니라 우방국의 임금처럼 동격으로 맞아주는데 대해 다소 의견이 있었으나 참고 넘기였다.

자식들에게 따돌리운것에 분이 치밀어 제땅을 차버리고 넘어온 늙은이를 왕건은 대번에 겨레통합의 성업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그 지위를 규정해버리고만것이였다.

통일에 이바지한 인물인데야 부디 투항이나 항복이나를 면전에서 따져가며 레우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왕건의 도량에 견훤은 확실히 감복해마지 않았다.

다음날인 935년 6월 스무아흐레날 견훤은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왕건에게 찾아가 정식으로 귀순의 레를 갖추어올리였다.

《고려국대왕폐하! 후백제의 망국군주 견훤이 폐하께 의탁코저 하니 받아주옵소서!》

수치심과 모멸감에 젖은 견훤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운 흐느낌이였다.

왕건은 황황히 내려와 꿇어엎드린 견훤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손수 부축하여 경희전마루에 함께 오른 다음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윽고 왕건은 엄숙히 입을 열었다.

《백관들은 들으라! 후백제대왕께서 나를 찾아오게 되신것은 대왕께서 정사를 그르쳐서가 아니라 신하들이 대왕을 잘 받들지 아니하

였기때문이니라. 나라일을 임금이상으로 잘 아는 신하가 어디 있으며 나라일을 임금이상으로 잘 처리할 신하 또한 어디 있던 말이냐. 임금이 옳다면 옳은것이고 그르다면 그른것이지 어느 놈이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여 이 지경이 되게까지 한단 말이뇨? 남의 집안사정이라 하여도 실로 분격을 누를길 없는 일이다.»

왕건은 후백제왕자들의 반정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하고있었다.

동병상련이라고 왕건은 지금 견훤과 자기가 처지가 바뀌었다면 어찌되었을가 하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우리 고려도 후백제의 이 일을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왕건은 태자책봉과 관련한 일에 이후에라도 머리를 빼쳐들 대상들이 없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기회맞춰 다시금 장을 지지였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후백제대왕께서 여생을 의탁코저 우리 고려에 귀순해오신것은 단군이래 우리 겨레의 령토와 인구를 통합하여 동방에 다시한번 위용을 떨치려는 모두의 뜻에 부합되는 장거이니 모두 이 용단을 찬양할것이다.»

왕건은 다시금 견훤의 귀순에 대해 찬사를 하고난 뒤 견훤에게 상보라는 존호로 부르겠다고 언명하면서 견훤의 지위를 백관의 우에 있는것으로 규정해주었다. 또한 양주땅을 견훤일행의 식읍으로 주고 궁성의 남쪽을 내주어 견훤이 거처하게 하였으며 남녀중 40여명과 말 10필을 주는 등으로 특별히 대우하게 하였다.

견훤은 왕건의 처사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견훤의 귀순은 왕건과 금필이네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국토통일의 하늘가에 비낀 려명의 시작이었다.

매암매암...

매미소리가 들려왔다.

남궁쪽 별당채앞에 서있는 느티나무가지우에서 우는 소리였다. 울음소리가 도글도글한게 알이 지고 영악스럽기까지 하였다.

매미소리가 저렇게 여무진것은 여름이 끝나가고있다는것을 말하는 것이였다.

견훤은 매미가 우는 그 느티나무밑에서 죽은 금강의 동생인 신강과 마주앉아있었다. 그사이 조금 진정되었던 가슴이 다시금 풀무처럼 풀떡거리기 시작했다. 신강이 가지고 온 소식때문이었다.

신강은 며칠전에 고려로 자진투항해왔다.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와의 논을 하고 그의 투항의사를 미리 통지하는걸 먼저 들어온것이였다. 신강의 말에 의하면 견훤의 딸 애랑은 남편 박영규에게 아버지를 구해내자고 매일같이 졸라대였다고 한다. 박영규도 신검형제와 능환의 소행에 격노하고있었지만 역량상차이를 생각하여 기회만 보아오던 참이었다. 견훤을 탈취해낸 다음이 문제였기때문이었다. 그냥 신검과 맞서야 할지 아니면 고려로 넘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전전공공하던 영규는 견훤이 고려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발 늦은것을 알고 후회했으나 소용이 없게 되었다.

애랑은 이번엔 또 고려로 넘어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겠다며 다시금 영규에게 애원했다.

한편 신검은 영규가 새 조정에 복종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완산주로 급히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짐승이나 한가지인 네놈이 나를 혼계해?》

부아가 솟구친 영규는 때마침 찾아온 신강의 말을 좇아 자기의 귀순결심을 먼저 고려에 알리도록 한것이였다.

이 소식에 접한 금필은 환성을 올렸다. 견훤의 아들인 신강에 이어 견훤의 사위이자 후백제의 큰 호족이며 장수인 영규가 투항해온다면 그 여과는 실로 클것이였기때문이었다. 금필은 왕건에게 이 기회에 견훤을 고무해주자고 제의했다.

왕건은 흔쾌히 응하였다. 조회를 펼한 뒤 둘은 남궁후원으로 나갔다.

《어서들 오시지요.》

견훤은 황황히 허리를 굽혔다.

《상보께서 편안하신지 보고싶어 나왔소이다. 남궁에 계시는게 혹여 불편하지나 않으신지요.》

《아니할 말씀이로소이다. 부탁하건대 말씀부터 낮추어주시오이다. 저는 고려폐하의 신하가 아니오이까!》

견훤은 거뚱거뚱 허리를 굽히었다.

《상보께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 내리신 그 용단 하나로도 일생 존경을 받으실것시오이다. 이렇게 아드님이 한분 뒤따라 오시고 이제 사위되는 사람까지도 상보의 뒤를 따르겠다 하였으니 이게 다 상보의 공이 아니겠소이까.》

왕건은 견훤을 연신 치하했다.

견훤의 얼굴은 그사이 더욱더 초췌해져있었다. 아무리 좋은 술도 그의 마음속 상처를 아물게 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는 심화병에 들어있었다.

금필이 왕건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온지 한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번엔 신라조정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경순왕이 투항의 뜻을 밝혀온 것이였다.

《신라왕이 투항의 뜻을 밝혀왔다고?!》

《그러하오이다. 일어난(서라벌앞 고을성)에 나가있는 염상장수가 알려왔소이다. 신라조정의 시랑 김봉휴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송악으로 떠났다고.》

박술희가 흥분에 떨며 알리는 말이였다.

《신라조정에서 마침내 락착을 지었던 말인고?!》

왕건은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였다.

《염상이 조급하게 다그어댄것은 아닐까?》

왕건이 금필이쪽으로 얼핏 눈길을 주었다.

《저...》

《그렇지는 않사오이다. 염상이 어찌 그런 일을 하였겠소이까.》  
최지몽이 금필을 막아나섰다.

허나 그 순간 금필의 얼굴은 금시 달아올랐다. 지몽과만 의논하고 염상에게 조금은 일이 빨리 되도록 알아서 할것을 귀띔했던 것이다. 왕건은 금필의 붉어진 얼굴을 알아보았으나 모르는척 하고 화제를 돌리었다.

《하오면 후백제와 결전을 치르기 전에 먼저 신라의 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아니겠소?》

《그렇사오이다. 신라의 투항을 받아들인 뒤 신라군사까지 합치여 후백제를 치여 결속을 하는것이 순리이오이다.》

지몽이 아뢰었다.

《후백제도 신라의 본을 따서 투항해올는지 어찌 알겠소.》

왕건은 후백제도 투항하였으면 하는 자세였다.

《후백제는 투항하리라 믿기 어렵사오이다.》

금필이 켜겨있던 마음을 다잡고 끼여들었다.

《아버지가 넘어왔는데 아들이 달리하겠소? 난 신라만 투항해오면 후백제도 투항하리라 믿고싶은데...》

왕건은 여전히 후백제도 투항해오기를 바라고있었다.

《두고보아야 할 일이오만 후백제는 버틸것이오이다. 그들과는 힘으로 겨루어 결말을 봐야 할줄 아오이다.》

금필은 달무와 아람이가 보내는 정보를 통해 후백제조정의 분위기를 세세히 파악하고있는지라 자신있게 대답했다.

《싸움은 어차피 해야 한단 말이겠소?!》

왕건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하오면 모두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소.》

《알아들었소이다.》

금필을 위시한 신하들모두가 기운차게 머리를 숙였다.

대전을 나온 금필은 그제야 긴숨을 몰아쉬었다. 등골과 목아래가 축축해났다. 왕건의 앞에서 진땀을 뻘것이었다.

사실 경순왕이 투항을 결심한것은 력사의 흐름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지만 그가 투항을 결심하고 이를 통지하는 편지를 보내기까

지 된데는 금필의 뒤조종이 작용을 한것은 사실이였다.

경순왕을 두번이나 만나보고 그의 마음속을 알대로 알고있는 금필이였다.

견훤이 고려로 귀순해온것을 알면 경순왕은 더욱 결심이 굳어질것 이였다.

문제는 대신들의 각이한 론의인데 그것은 왕이 결심할타이였다. 일단 왕이 결심하고 어명으로 선언만 하면 그만인것이였다.

그 결심을 하는것이 힘든것이다. 실은 이 결심을 내리기가 힘들어 몇년째 세월을 보내고있는것이였다.

리해가 가는 일이였다. 천여년을 자랑해온 한 나라의 사직을 포기 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용단을 내리기도 험치 않을 것이였다.

웬만한 담으론 어렵없는 이런 일에는 옆구리를 찢러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게 된다. 용단을 내리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일종의 충격을 주어야 하는것이였다.

금필은 서라벌어귀에 둔치고있는 염상에게 경순왕을 보채도록 지 시했었다.

금필의 지시대로 염상은 틈만 있으면 신라왕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라벌도성을 순찰하군 하였다.

이전에 금필이 떨구어두었던 신라왕궁호위군사를 철수시킨 다음부터 시작한 관례였다. 보름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때없이 들어갔다.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경순왕을 직접 만나는것으로 압박하군 하였다. 견훤이 고려에 귀순한 사실도 염상이 직접 경순왕에게 알려주었다.

염상의 잦은 접촉에 어지간히 마음이 다잡혀지고있던 경순왕은 그로부터 견훤의 귀순소식을 듣자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되였다.

《경들도 알다싶이 신라는 이미 쇠진할대로 쇠진했소. 왕명이 지방에 통하지 않는지도 벌써 몇해째 잘되고있소. 근간에 왕실과 조정의

호구지책이 얼마나 힘겨운것인지는 경들도 다 아는 사실일거요. 경들이 록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도 벌써 몇달째가 되니 말ियो.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상은 이렇소. 하다면 후백제에 먹히기를 앉아서 기다려야 옳겠소? 과인은 쓰러지는 국운을 돌보는 마지막수단으로 백성과 국토를 고려에 합칠가 하오.»

경순왕은 마디마디 살점에 못을 박는 심정으로 말을 잇고있었다.

《하오면 투항이란 말이오이까?》

태자가 바닥을 치며 머리를 숙구었다.

《해석하기에 달린것이다. 내가 임금되기를 그만두는 일이니 투항이라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것이다.》

《그래서는 아니 되오이다. 다시금 민심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켜 힘이 다할 때까지 해보시고나서 논의해도 될 일이 아니겠소이까?》

어찌 천년사직을 그리도 쉽게 내여주려는것이오이까?》

태자는 태질하듯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다.

경순왕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정말로 모르는구나. 우리를 따를 민심이 어디 있고 일으킬 군사는 또 어디 있단 말이나? 온전한 장수 하나 없는데 이 나라 실상이니라. 우리 선대때에 그리도 애타게 동분서주하던 그 최치원이 왜서 지금에 와선 죽어도 조정엔 다시 나서지 않겠다고 뻔치는줄 아느냐. 가망이 없다는걸 그는 알고있기때문이니라. 우리 신라의 유명한 재사들인 최언위와 최지몽이 이미전에 고려로 넘어가 왕건의 두뇌가 되어주고있는것을 너도 알테지? 서라벌 북쪽의 민심은 이미전부터 고려에 가있었느니라. 지금은 신라민심이 통채로 고려로 기울었고... 너는 그래 그것을 모른단 말이나? 지금 이려고있다가는 자칫하면 견훤이 길러놓은 후백제의 새끼범아가리에 신라가 먹히울수 있다는걸 너는 왜 생각 못하느냐 말이다.》

경순왕은 애틍는 목소리로 타일렀다.

하지만 태자는 막무가내였다.

《모두가 죽기로 싸운다면 후백제도 고려도 물러설것이오이다.》



《끌어내가라!》

경순왕은 단호했다.

《나라의 종사를 걱정하는 태자의 마음 가늠하다 할것이나 되지도 않을 사직타령하며 백성의 안녕은 생각도 않는 그따위 행실에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노라.

지금은 누구든 신라라는 작은 울타리에만 움해있을 때가 아니니라. 수치는 잠시잠간 견디면 그만일것이로되 겨레의 통합이라는 큰 위업을 성취하는데 스스로 기여했음이 그래 후손대대 부끄러움으로만 전해질 일일것 같으나!

다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앞을 보아라!》

경순왕은 울부짖었다.

《전하! 왕명을 받들겠나이다. 고정하소서!》

대신관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에 비분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투항을 반대하는 대신들도 똑같이 통곡하였다.

어전은 울음바다가 되었으나 대다수 관료들은 왕의 결심을 따랐다.

《나라의 운이 점차 쇠미해지고 천운이 다하여 왕업을 보존할 실낱같은 희망도 없사온데 다행히 천자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온 백성과 더불어 국토를 들어 투항하고자 하옵나이다. 부디 수락하여주소서. …》

경순왕은 이런 내용의 국서를 왕건에게 보내었다.

그는 견훤을 받아들인 왕건의 소행에서 큰 충격을 받았었다.

경순왕 자기와는 달리 견훤은 왕건과 죽기나기로 맞선 적수중의 적수였다.

견훤의 칼에 고려의 아까운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던가. 장수들도 적잖았고 군사는 또 얼마던가. 게다가 왕건은 자기의 장인 오다린과 4촌동생 왕신이까지 잃지 않았던가.

칼탕처죽여도 고려국의 분을 풀수 없을 정도인데도 왕건은 견훤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보에, 록봉에, 식읍에 그 환대가 극도

에 닿아있었다.

처음 한동안은 의아해하기까지 하였으나 인차 깨도를 하였다.

(겨레의 통합에 이바지한 측면을 중시하다보니 전날의 죄목 같은걸 무시해버린것이다. 왕건은 확실히 그릇이 큰 인물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경순왕은 서둘렀던것이다.

왕건은 경순왕의 국서를 받은 즉시 이를 수락하는 답서를 보내었다.

왕건의 국서를 가지고 고려의 사신일행이 경순왕에게로 달려왔다. 경순왕은 투항할 준비가 끝나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고려 개경으로 떠났다.

행렬은 자그만치 삼십리까지 늘어섰다. 보물을 실은 수레들과 일행을 호위하는 신라군사들, 그뒤를 따라선 신라백성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있었다. 중간중간에 고려군이 섞이여 호위를 했다.

염상은 이 거사의 주인이 자기자신인듯 말을 경순왕의 주련옆에 나란히 대고 경순왕과 어깨동이를 하고 걸었다.

행렬이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하얗게 나와 경순왕을 환호했다. 명색이 신라의 관할일뿐 실지는 이미전에 고려의 땅이나 다름없이 된 마을들이었다. 이미 자기들은 고려사람이 다된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이제는 임금마저 자신들과 한모양으로 고려의 한지붕안에 들었으니 그 기쁨이 여간 크지 않을것이었다.

태자와 함께 경순왕의 막내아들 김평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태자의 누이인 덕주공주는 개경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중원경에서 떨어져 월악산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

태자는 개팔산(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살다가 죽었다.

《죽어도 고려의 신하로는 될수 없소이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망국신라를 끝까지 조상하겠나이다.》

떠나는 아버의 등에다 대고 하직인사로 남긴 말이였다.

력사에 《마의태자》로 이름을 남긴 이 왕자의 행실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그의 소행이 신라의 한 왕조에는 충성으로 될지 모르나 겨레의 소망에는 불충으로밖에 될수 없을것이다. 그는 통상에 앉아보려는 일신의 꿈에만 마음쓴 나머지 대세의 요구와 겨레의 통일소망은 외면하였던것이다. 력사의 뒤길로 가버린 협애한 사람, 돌이켜볼 가치도 없는 구슬픈 인간이었다.

그러나 경순왕은 태자가 가버린 오솔길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력사의 넓은 길로 갔다. 일신의 부귀영화도, 누구에게나 차례지지 않는 황금의 옥좌도 그는 미련없이 버리고 나섰다. 겨레의 통합이라는 대사를 이루려면 누구나 티끌같은 사심도 없어야 한다는것을 력사에 깊이깊이 새겨놓으며...

935년 10월에 고려에 사신을 파하여 투항을 알리였고 11월에 개경으로 들어갔다. 갑오일에 신라도움을 떠나 꼭 열흘만인 계묘일에 개경에 도착하였다.

왕건은 개경도성밖 교외의 넓은 들판에서 신라왕을 맞도록 분부했다.

개경밖 남쪽들판이 졸지에 큰 거리로 변하였다. 천막들이 틈없이 늘어서고 그뒤를 고려군의 기치창검이 숲을 이루며 둘러섰다.

금필은 지금 마냥 부풀어오르는 흥분을 겨우 녹잡한채 마중나온 왕건을 바라보고있었다.

오늘따라 왕건의 모습은 더없이 웅건해보였다. 그옆에 서있는 태자 무도 대견스럽기 그지없었다.

최지몽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행사를 주관하는데 몹시도 분주했다. 먼발치에 신라왕의 행렬이 나타나자 그는 손을 들어 앞쪽에 나가있는 궁내부대신에게 신호했다. 조금 있더니 신라왕이 련에서 내려 허겁지겁 몇발자국을 내짚더니 두무릎을 꿇으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무릎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신라의 관료들이 모두 그 본을 따랐다.

《저들을 일으켜세우라!》

왕건이 급히 손을 저으며 지몽에게 얼굴을 돌렸다.

《신라왕은 투항해오는 임금시오이다. 고금의 규례대로 무릎걸음에 아홉번 절을 올린 뒤에 투항을 청하도록 해야 하는것이오이다.》  
지몽이 구구히 설명해나섰다.

《일으켜세우라고 하지 않느냐!》

왕건이 다시금 소리치자 급창사령이 되받아넘겨 경순왕을 멈추어 세웠다. 허나 무릎걸음을 허물지 않은채로 왕건의 코앞까지 고집스레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서 진땀이 흐르고있었다. 그가 이렇게 훑어보기는 건훤이앞에 나서본 이후론 처음일것이였다.

《고려대왕폐하! 신하의 례를 올릴터이니 받아주소서!》

경순왕의 말이 끝나는 순간 왕건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라는 고려와 전쟁을 한 사이도 아니요. 지금껏 서로 도우며 형제로 지내온터인데 어찌 투항하는 례를 하게 한단 말이요.》

왕건은 누구에게라 없이 질책하며 신라왕에게 일어서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신라왕은 개의치 않고 고두배례를 시작했다.

한번... 또 한번...

왕건은 그만 참지 못하고 경순왕의 팔소매를 잡아 멈추었다.

《됐소, 부디 례를 갖출 필요는 없으니 그만하시오.》

왕건은 경순왕을 일으키고는 그의 팔을 끼며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량쪽의 대신들이 다같이 놀랐다.

고려측의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뢰였다.

《폐하! 신라왕의 투항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옛 규례를 지키셔야 하오이다.》

《웁소이다. 군신의 례만은 명백히 받아두어야 하오이다.》

《다시한번 말하는데 신라는 고려와 전쟁을 한 사이가 아니니라. 신라왕은 이전에도 나와 형제였고 앞으로도 형제로 있을것이니라. 투항의 례라는건 당치도 않은 말이로다.》

왕건이 다시금 외우는 소리에도 고려대신들은 한발씩 나온 입을 들이밀념을 하지 않고있었다. 이견 너무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반면 경순왕과 신라대신들은 감격해마지 않았다.

왕건은 서둘러 경순왕일행을 궁성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류화공에 거처를 정하도록 했다. 나머지일행은 들판에 가설한 천막 거리에 림시로 들도록 했다.

《폐하! 신라의 귀속으로 고려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소이다. 이는 폐하의 성덕에 하늘이 감복한것이라 할것이오이다. 축수를 드리오이다.》

대신들이 왕건이앞에 몰려들어 일일이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왕건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신라라는 한개 나라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으니 대만족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통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있는것이였다. …

12월 임신일 궁성의 내전인 천덕전에서는 신라의 귀속을 받아들이는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였다. 경순왕은 자세를 바로하고 왕건에게 신하의 례를 갖춘 절을 올리였다. 량쪽의 문무대신들이 똑같이 환호하며 두손 들어 축하를 표시했다.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고려조정 의 정승으로 임명하고 그 품위가 태자의 우에 이른다고 선포하였다. 그의 년록봉을 천석으로 정해주고 궁성안에 신만공을 새로 지어 거처하게 하였다.

같이 온 대신들에게도 토지와 례봉을 후하게 주도록 했다.

뒤이어 신라국이 폐지되었음을 선포한 뒤 서라벌을 경주라 이름하고 김부의 식읍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날 밤 주연끝에 왕건은 다시금 김부와 마주앉았다.

대낮같이 불을 밝힌 내전마루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껏 차 넘치고있었다.

왕건은 취흥이 도도한 얼굴에 함뻍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눈길은 김부의 얼굴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마치 친자식을 애무하는 아버지의 눈빛같았다.

실은 이 시각 김부에 대해 왕건은 그 이상의 애정을 품고있었다. 나이로 봐도 김부는 왕건에게 아들벌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다. 왕건이 천일곱인데 비해 김부는 서른다섯밖에 안되는 젊은이었다. 그런 그가 일생의 대용단을 내린것이였다. 동쪽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화합해서 살아가자고 조상대대 천년을 이어온 임금의 지위를 미련없이 내놓은것이였다. 본의든 아니든 겨레의 소망을 위해 왕위마저 포기하여 통일성업의 또 하나의 려명을 마련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장한것인가.

왕건은 진심으로 그에게 존경심이 갔다.

《대왕!》

왕건은 김부의 어깨를 두손으로 그려안았다.

《폐하! 신은 이제 더는 대왕이 아니오이다. 다시 불러주옵소서!》  
김부는 당황하여 말꼬리를 흐리였다.

《아니요, 대왕! 그대의 용단에 내 다시한번 머리숙여 인사하는바요. 그리고 겨레의 통일성업에 마음도 같이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우리 정표를 나누어 이 의리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합시다.》

《그게 좋겠사오이다. 폐하께옵선 어떤 정표를 나누자고 하시오이까?》

김부가 반색을 하고 나섰다.

《내 생각엔 우리 고려왕실과 옛 신라왕실사이에 혼인을 맺도록 함이 좋을듯 하오.》

《황공하오이다. 하오면... 신은 백부 김억렴의 딸을 추천해올리는바로소이다. 그의 덕과 용모가 지극히 아름다와서 폐하의 배필로서 손색이 없을줄 아오이다.》

《과인은 그대에게 나의 맏딸 락랑공주를 부탁하려 하오.》

《망국하오이다. 백골이 진토된다 해도 공주님의 옥체를 하늘만큼 귀히 여겨 보호하겠사오이다.》

《그대가 하늘같이 귀한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 그에 맞는 보답을 못해 송구할뿐이요. 이날까지 금쪽같이 귀히 품어온 딸을 주는것

이니 과인의 진정을 잊지 말아주소.》

왕건의 간곡한 당부에 김부는 그만 눈물을 쏟고말았다. 이마를 마루에 댄채 흐르는 눈물을 감출양인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였다.

한 나라의 사직을, 그것도 원기왕성한것이라면 몰라도 스러질대로 스러진 다 삭아빠진 나라의 사직을 어깨에 걸머지고 어떻게든 지탱코저 그간에 속인들 얼마나 썩었던가. 무능한 조상들을 탓하기는 그 몇번, 마지막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 원망하였었다.

김부는 부모의 사랑도 얼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였다.

그의 아버지 김효종은 진성녀왕 말기에 신라조정의 시종으로 있다가 경명왕대에 조정에서 물러나와서도 신라를 버터보겠노라 사화진 성주로 내려가있었고 이후엔 자기가 이전에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애써 꾸려놓았던 대야성이 다시금 위태로와지자 그곳으로 내려가서 싸우다가 후백제장수 추허조에게 패하여 자결하고말았다.

김부는 아버지가 늘 변방에 나가있었기에 언제 한번 얼굴을 익힐새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애무는커녕 회초리 한번 맞아보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란것이였다.

그런 그가 지금 왕건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친근감을 느끼고있는것이였다.

룡상에 버티고있느라 언제 한번 흘려볼수 없었던 눈물을 장인이 된 왕건앞에서 그만에야 터뜨린것이였다.

왕건은 엎드려 우는 김부의 등허리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넘고있었다.

왕건이 흥분하고있는것을 띄여본 금필이 술희와 함께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폐하! ... 고정하옵소서!》

주연이 끝난 뒤에도 금필과 술희는 왕건의 곁을 뜨지 않고있었다. 이날 밤만은 왕건과 더불어 밤을 썰 잡도리였던것이다.

흐느끼던 김부가 얼굴을 쳐들었다.

왕건은 여전히 김부를 그리안은채 금필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이보게, 동생들! 만나보면 형제요, 안아보면 자식일세그려! 후백제도 이렇게 칼을 놓고 우리와 손잡으면 얼마나 좋을텐가 말일세!》

《옳은 말씀이로소이다!》

금필도 술희와 함께 진심으로 응수했다.

《나는 여러번 말했어, 이제는 칼을 내려놓자고. 그런데 자네들은 뭐가! 계속 고집하면서… 금필동생! 자넨 나빠! 지몽이하고 계속 그 작당을 하고있거든.》

《폐하! 고정하옵소서!》

금필은 당황해났다. 왕건이 취중에 하는 소리나 그속엔 불만이 한껏 깔려있는것이다.

(폐하가 후백제와의 전쟁을 정말로 원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 그러면 아니 되시겠는데…)

금필은 당황한중에도 걱정이 밀려들었다.

(폐하도 이제 늙으셨는가! … 하기는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아닌가!)

금필은 왕건의 내인이 된 딸(동양원부인)이 아들을 낳은것을 상기하자 마음이 이상스레 저러왔다.

(전쟁! … 전쟁은 꼭 해야만 하는것일가?! …)

금필은 저도 모르게 회의심에 빠져들었다.

하기야 전쟁을 하지 않고 후백제를 굶힐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금필은 왕건이 바라는대로 후백제를 싸움이 아니라 담판으로 굶혀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금필은 지몽과 마주앉았다. 건훤으로 하여금 후백제의 2대 왕인 신검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편지를 쓰게 하려는것이였다.